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코트디부아르

Republic of Côte d'Ivoire

2018년 11월 1일 | 선임조사역(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22천 km ² 	인구 25.61백만 명 (2018 추정) 	정치체제 다당제 민주주의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458.75억 달러 	1인당GDP 1,791.37달러 (2018 추정)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환율(U\$기준) 548.70 (2018 추정) 

□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한반도의 1.4배 규모의 국토와 2,561만명 (2018년 추정)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말리, 부르키나파소(북), 가나(동), 라이베리아, 기니(서)와 국경을 접함.

□ 2002년 내전 발발 이래 정국 불안이 지속되었으며 2007년 내전 종식을 선언했으나 201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유혈 충돌이 발생하며 내전이 재개되어 2011년 5월 종식됨.

□ 2011년 5월 출범한 Ouattara 정부는 국가개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 부흥을 추진 중이며, 정국 불안이 해소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내전 종식 후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2012년 대규모 공적채무 탕감을 받았으며, IMF의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1. 7. 23 수교 (북한과는 1985. 1. 19)

주요협정 의료기술협정 ('68), 문화협정 ('80),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 ('86),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99), 포괄적 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0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출	117,042	76,687	110,692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수입	14,481	14,869	7,888	코코아, 목재, 동, 커피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7건, 60,353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8.8	8.8	8.3	7.8	7.4
소비자물가상승률	0.4	1.2	0.7	0.8	1.7
재정수지/GDP	-2.2	-2.8	-3.9	-4.2	-3.8

자료: IMF, EU

내전 종식 이후 사회기반시설 구축, 농산물 생산량 증가로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 2011년 내전 종식 후 정치 안정이 정부지출 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로 이어지며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코코아, 커피의 생산량이 증가한 결과 2012~16년 연 8~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17년에는 코코아 국제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과 농산물 수확 증대 등으로 7.8%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에는 코코아 국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 도로·교량 등 인프라 구축이 성장을 견인하여 전년과 비슷한 7.4%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연결선물 기준 2015년 12월 11일 톤당 3,410달러까지 상승했던 코코아 국제가격은 2016년 중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여 2017년 5월 5일 톤당 1,780달러로 절반 가까이 폭락하였으나, 2018년 들어 회복세를 보여 5월 1일 톤당 2,914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재조정 을 거듭하며 10월 31일 2,234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림 1> 최근 3년 간 코코아 국제가격 추이



자료: ICE (조회일자: 2018.11.1.)

국내경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수준 유지

- 코트디부아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세파프랑(CFA Franc)¹⁾의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로 인해 수입 가격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적고, 국제유가 하락과 내전 종식 후 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간 0.5~1.3%대의 완만한 수준을 유지해 왔음.
- 세파프랑의 유로화에 대한 환율 고정(1유로 = 655.957세파프랑)으로, 주요 수입상대국인 유로존 국가들(특히 프랑스)로부터의 상품·서비스 수입가격이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음.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환율은 5월 하순 이후 1.14~1.18유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음.
 - ※ 코트디부아르의 2017년 기준 5대 무역상대국²⁾
 - 5대 수출상대국 : EU 41.8%, 미국 7.9%, 부르키나파소 4.5%, 인도 4.4%, 말리 4.2%
 - 5대 수입상대국 : EU 32.1%, 나이지리아 15.0%, 중국 11.3%, 미국 4.3%, 인도 3.8%
- 2017년에도 동일한 기조가 이어져 0.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고성장 지속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축소, 국제유가 상승 추세 등의 요인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세파프랑화 사용국들의 통화정책은 세파프랑화 발행기관인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에 의해 결정되며, 세파프랑화가 유로화에 페그됨에 따라 BCEAO의 정책 결정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음. 즉, 각국이 독자적 통화정책으로 소비자물가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정개혁 노력으로 적자폭이 다소 개선될 전망

-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와 부가가치세 개혁, 주류·담배 등에 대한 높은 소비세, 통신 분야의 세수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인 세금징수기관의 행정력 부족 및 비효율이 재정수지 적자 지속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7년에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 (-3.9%) 대비 다소 상승한 -4.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축소, 일부 공기업 민영화 등 재정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3.8%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1)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으로 자국통화인 프랑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자 (미 달러에 대한 프랑화 환율이 1:50에서 1:119로 급등) 아프리카에서 자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계속 유지코자 1945년 12월 26일 당시 아프리카의 자국 식민지들의 화폐로 CFA 프랑화(CFA franc)를 탄생시켰으며, CFA 프랑화 사용국들을 프랑존(franc zone)이라 지칭함. CFA 프랑은 프랑존 국가들과 프랑스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화폐가치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 보증되므로 대외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채택으로 자국 경제에 비해 화폐가치가 고평가되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프랑존 국가들의 저개발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됨.

2) 자료: Ivory Coast - Trade Statistics - European Commission
(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22459.pd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510	-202	-414	-1,152	-1,514
경상수지/GDP	1.5	-0.6	-1.1	-2.9	-3.3
상 품 수 지	3,873	3,169	3,065	2,296	2,358
상 품 수 출	12,968	11,731	10,876	11,743	11,613
상 품 수 입	9,095	8,562	7,810	9,447	9,255
외 환 보 유 액	4,768	5,190	4,588	5,738	5,580
총 외 채	12,532	12,280	13,577	14,742	20,592
총외채잔액/GDP	35.5	37.1	37.4	36.5	44.5
D.S.R.	6.2	10.7	17.7	17.9	14.5

자료: IMF, EIU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캐슈넛 등의 상품작물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광업 부문 개발 및 인프라 투자 관련 서비스 수입 증가와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원리금 상환 증가가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로 이어져 경상수지는 2015년부터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8년에도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할 전망이나,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서비스 수입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한 -3%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7년 및 2018년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속적인 고성장에 기반한 대외신인도 개선에 힘입어 2014년에 이어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유로본드³⁾ 발행에 성공하였음.
- 2017년 6월 12일 달러화 표시 16년 만기 12.5억 달러(금리 6.125%), 유로화 표시 8년 만기 6.25억 유로(금리 5.125%)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하였음. 특히 유로화 표시 유로본드 발행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초임.

3) 통화국 외에서 발행하는 통화국 화폐 표시 채권.

대외거래

- 이어 2018년 3월 15일에는 유로화 표시 17억 유로(11년 만기 금리 5.25% 및 29년 만기 금리 6.625%로 각각 8.5억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하였음. 이는 21세기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대 규모의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이자 금년도 신흥국 유로본드 발행 중 루마니아(20억 유로, 2월 1일)에 이어 2위 규모임.⁴⁾
- 금번 유로본드 발행은 17억 유로 공모에 42억 유로 규모의 신청이 몰려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음. 앞서 2014년 7월 7.5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시에도 47억 달러의 매수주문이 접수되었으며, 2015년 10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시에는 40억 달러의 매수주문이 요청되며 성공적으로 발행을 완료한 바 있음.

IMF의 양허성 차관 지원

- IMF는 내전 종식 후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긴급차관(Rapid Credit Facility; RCF) 1.3억 달러와 확장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ECF, 2011~14년) 6.2억 달러를 승인하였고, 2014년 말 확장차관을 1년 연장하며 1.9억 달러의 한도를 추가로 부여한 바 있음.
- 이어 2016년 12월 12일 IMF는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재정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3년 기한으로 4억 8,780만 SDR(약 6억 5,890만 달러) 규모의 ECF 및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EFF) 제공을 승인하였음.⁵⁾
- 동 프로그램은 인프라 구축 및 우선적 사회지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지균형, 포괄적 경제성장 및 빈곤 감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초 승인 이후 한도가 6억 5,040만 SDR(약 9억 1,780만 달러)로 증액되었음.

외채상환능력

2012년 다자간 채무탕감 이후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개선

- 코트디부아르는 2012년 6월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 파리클럽 공적채무 탕감 등으로 465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탕감받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D.S.R.이 2011년 말 83.2% 및 29.8%에서 2012년 말 50.5% 및 12.7%로 크게 개선된 바 있음.
- 2017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6.5%, D.S.R.은 17.9%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 말에는 유로본드 발행으로 인한 총외채잔액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44%대 중반으로 상승하겠으나, D.S.R.은 전년대비 낮아진 14%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자료: cbonds.com/countries/Cote-d-Ivoire-bond

5) RCF는 긴급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급함. ECF는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함. EFF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대규모 자금을 장기 지원함.

구조적취약성

농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코트디부아르는 수출용 상품작물(cash crop)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국가임. 농업 부문이 2017년 기준(추정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이나, 고용의 68%를 담당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음.⁶⁾
- 2016년 기준 상품수출 구성은 농산물 60.2%, 공산품(제조업 제품) 11.9%, 연료 및 광물제품 11.3%, 기타 16.5%로 집계됨. 한편, 상품수입 구성은 공산품(제조업 제품) 55.5%, 농산물 19.8%, 연료 및 광물제품 14.0%, 기타 10.6%로 다수의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⁷⁾
- 특히 초콜렛과 코코아 등의 원료인 코코아 빈(cocoa bean, 세계 1위)를 비롯하여 얀(yam), 카사바(cassava), 사탕수수 등이 농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기후와 작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UN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코트디부아르의 2016년 코코아 빈 생산량은 1,472,313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33.0%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세계 2위 가나(858,720톤)의 생산량보다 71.5% 더 많은 규모임.⁸⁾

열악한 전력, 도로 등 인프라로 인해 취약한 성장기반

- 과중한 대외채무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 및 오랜 내전으로 인해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2016-17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138개국 중 인프라 부문 87위(종합순위 99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의 2018년도 기업경영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전력공급 부문에서 129위(종합순위 139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성장잠재력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

- 코트디부아르는 2천만 명 이상의 인구 및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임.
-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투자진출이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에 대한 투자진출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코트디부아르는 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6) 자료: CIA World Factbook (조회일자: 2018.10.29.)

7) 자료: WTO (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Country=Ci&Language=E / 조회일자: 2018.10.29.)

8) 자료: FAOStat (www.fao.org/faostat/en/#data/QC)

성장잠재력

- 과거 쿠데타와 내전 등의 정세불안으로 경제성장이 부진하였으나,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며 Ouattara 대통령이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의장으로 선출되고, 코트디부아르 내전으로 인해 2003년 경제수도인 아비장에서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로 이전했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2014년 아비장으로 복귀하는 등 역내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관광 및 광업 부문의 개발 잠재력 보유

- 코트디부아르는 대서양과 접하는 약 520km의 청정해안과 열대성 기후를 갖춰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보유하여 종합 관광지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또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 유럽 관광객의 방문 수요가 많음.
- 과거의 수도이자 여전히 제1의 도시로 경제중심지인 아비장은 현대식 도시계획, 고층빌딩, 녹지 등의 조화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며 '아프리카의 작은 파리'로 불림.
-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원유, 천연가스, 니켈, 망간,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확인매장량은 현재까지 많지 않으나 다양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여 개발 잠재력이 기대되고 있음.

정책성과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 추진

- 2012년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난 수년 간의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2020년 신흥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국가개발계획(NDP, 2012~15년)을 수립, 추진한 데 이어 2016년 제2차 NDP(2016~20년)를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에너지 부문의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플랜트 및 LNG 플랜트, 산업(제조업) 부문의 광산 개발, 교통운송 부문의 항만 개발 및 고속도로 건설 등이 주요 프로젝트들임.
- 정부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유럽, 미국, 중국 등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국 회의에서 제2차 NDP의 일부로 추진되는 각종 프로젝트에 소요될 600억 달러의 투자재원 중 일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54억 달러의 원조 제공을 약속받음.

정책성과

<표 1> 제2차 NDP의 주요 추진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내용	소요예산 (US\$백만)
에너지	Boundiali 지역에 발전용량 25MW 규모의 면화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플랜트 건설·운영	58
	Gagnoa 지역에 발전용량 20MW 규모의 코코아 바이오매스 발전 플랜트 건설·운영	42
	내수용 LNG 공급 프로젝트	200
산업 (제조업)	Abidjan과 내륙 지역에서의 산업지역(industrial zones) 신규 건설·개발	430
	서부 지역에서의 통합적 광산 개발	2,718
교통운송, 인프라	San Pedro 지역 항구 일대 150헥타르 재매립·개발	156
	Vridi-Bietry 만(灣) 재매립·개발	206
	Abidjan-Samo 구간 고속도로 건설·운영	112
축산업, 수산업	Abidjan-Anyama 지역에 도축시설 및 가축 시장 복합단지 건설·운영	42
	목장 및 가축 번식장(breeding station)의 통합적 운영	34
무역	Abidjan, Daloa, Abengourou 및 7개 주도(provincial capitals)에 10개 도매시장 개설·운영	246
중소기업 육성	Abidjan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개장·운영	106

자료: World Bank Group Tokyo Bureau, 7th TICAD Seminar - Côte d'Ivoire (2016-06-10)

농업 증산 및 유통 촉진 프로젝트인 PROPACOM 추진

- 코트디부아르의 농업 부문은 코코아를 중심으로 하는 환금성 작물(cash crop)에 집중되어 식량 자급률이 낮음.⁹⁾ 이에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3년 1월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종자 보급, 비료 지원 및 기술지도 등을 기본 틀로 하는 농업 증산 및 유통 촉진 프로젝트(PROPACOM)를 개시하였음.
- 2018년 3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코트디부아르 정부 간에 농업 밸류체인 개발 프로그램(PADFA) 금융지원 약정이 체결되어, PROPACOM을 비롯한 농업개발 프로젝트들에 7,180만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이 제공될 계획임.¹⁰⁾

기업경영여건은 여전히 세계 하위권이나 지속적 개선 추세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의하면, 코트디부아르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종합순위 139위로 기업경영여건이 세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다만, 동 순위는 2013년 177위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임.¹¹⁾
- 창업(44위) 및 기업 파산 절차(77위)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8개)에서 100위권 밖에 그쳤으며, 특히 건축 인·허가(152위), 통관절차(155위), 납세(175위) 부문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9) UN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코트디부아르의 2016년 쌀 생산량은 176.8만 톤으로, 정부 목표량인 190만 톤에는 다소 미달하였음.

자료: FAOStat (www.fao.org/faostat/en/#data/QC)

10) 자료: IFAD (www.ifad.org/web/latest/news-detail/asset/40241921)

11) 코트디부아르의 순위 추이 : 177위('13) → 167위('14) → 147위('15) → 142위('16) → 142위('17) → 139위('18)

정치동향

2011년 Ouattara 정부 출범 후 정치안정 회복세

- 2000년 대선에서 코트디부아르인민전선(FPI)의 Laurent Gbagbo 후보가 당선되어 집권한 직후 남부의 기독교계 정부군과 북부의 이슬람계 정치세력인 공화연합(RDR) 주도의 반군 간에 내전이 발발, 이후 10년 이상 무력 충돌이 지속되며 다수의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였음.
- 2005년 5월 RDR, 코트디부아르민주당(PDCI), 코트디부아르민주평화연맹(UDPCI), 미래의힘운동(MFA), 코트디부아르연맹(UPCI)은 초대 대통령인 Félix Houphouët-Boigny의 이름을 딴 Houphouët민주평화연합(RHDP)을 구성하였음.
- 2010년 대선에서 RDR의 Alassane Ouattara 후보가 당선되자 Gbagbo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FPI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으나, 2011년 UN과 프랑스의 군사 개입으로 Gbagbo 대통령이 체포된 데 이어 5월 Ouattara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RDR과 당시 연립여당의 일원이었던 PDCI가 다수당 위치를 확보함.
- 2010년 대선에서는 연정 내 5개 정당이 각각 대선 후보를 내었으나, 2015년 대선에서는 Ouattara 대통령을 공동 후보로 지명하였음. 한편, 2016년 코트디부아르노동자당(PIT)이 RHDP에 참여하여 현재 6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음.
- Ouattara 대통령은 2012년 내각 개편을 통해 자신의 오랜 측근들을 다수 기용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며, RHDP가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 의석(255석 중 167석)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FPI를 포함한 야당은 2011년 총선을 보이콧하고 제도권 내 정치에 참여를 거부하였으나, 2016년 12월 총선에 FPI 내 파벌 일부가 참여하며 제도권 내 정치에 부분적으로 복귀하였음. 다만, FPI는 동 선거에서 겨우 3석을 획득하며 참패하였음.
- FPI는 내전시 현 정부 인사들도 잔혹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비난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수감된 Laurent Gbagbo 前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권의 모든 수감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음.
- Ouattara 대통령은 2018년 8월 초 Gbagbo 前대통령의 부인인 Simone Gbagbo를 포함한 일부 전 정권 인사 800여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등 정치 정상화를 위한 유화적 정책을 펴고 있음.
- Simone Gbagbo는 2010년 12월 선거 후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심각한 폭력행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가 인정되어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

연정의 양대 축인 RDR과 PDCI 간의 갈등으로 연정 내 분열 발생

- Ouattara 대통령은 RHDP의 양대 축인 RDR과 PDCI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북부와 남부 간의 적대감을 진정시키고자 2017년 1월 PDCI 소속이며 남동부 출신인 Daniel Kablan Duncan 의원을 부통령으로 임명하였음. 이러한 노력에 더해 Ouattara 대통령과 PDCI의 지도자인 Henri Konan Bédié 간의 개인적 친분 등에 힘입어 2018년 중반까지는 양 진영 간의 공조가 유지되었음.

정치동향

- 그러나 2020년 대선의 RHDP측 후보 선출을 놓고 앞서 두 차례 대선에서 RDR측이 대선 후보를 내었으므로 이번에는 자신들이 후보를 내겠다는 PDCI의 요구에 대해 RDR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8년 6월 PDCI는 2020년 이전까지 RHDP 내 6개 정당을 통합하여 단일 정당을 구성하는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하여 RHDP에서 이탈하였음.
- PDCI는 이어 9월 초 FPI와 공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CEI)의 개혁을 촉구하며 10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연기를 요구하는 등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연정 내의 분열이 노출되며 항구적인 정치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현재 CEI는 RHDP 내 RDR에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2018년 8월 CEI 개혁을 공약하였으나 지방선거가 아닌 2020년 대선 이전에 CEI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음.

10월 지방선거 결과 RHDP와 PDCI의 대립이 고조될 전망

- 2018년 지방선거는 당초 예정대로 10월 13일 실시되었으나, 투표 종료 후 PDCI 지지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 결과의 즉각적인 발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서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PDCI는 금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RHDP에서 이탈, 독자 후보를 공천하여 RHDP와 경쟁하였음.
- 지방선거 결과 RHDP는 약 60%의 총득표율로 31개 지역 중 18개 지역의 지방정부 및 92개 시·군 지자체에서 승리하였으나, PDCI는 수도 Yamoussoukro와 경제수도 Abidjan을 비롯한 6개 지방정부 및 50개 시·군 지자체에서 승리하여 선전하였음.
- 아울러 무소속 독립 후보들은 3개 지방정부 및 56개 시·군 지자체에서 승리하였으며, Gbagbo 前대통령의 지지세력인 FPI는 당 지도자인 Pascal Affi N'Guessan의 파벌만이 출마하여 1개 지방정부 및 2개 시·군 지자체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음.
- PDCI는 향후 무소속 당선자들과 협력하여 RHDP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Gbagbo 前대통령의 지지세력인 FPI와도 협력할 것으로 보여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사회동향

급료 문제로 인한 군인들의 반란 재발 가능성 상존

- 2017년 1월 8일 군인들이 급료 인상과 보너스 지급 등을 요구하며 군사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는 즉각 협상을 통해 보너스 일부를 지급하여 하루 만에 반란을 중지시켰으나 잔여금은 정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계속 지연시켰음.
- 라이베리아에서 평화유지군 임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급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역 군인들이 주도하고 현역 군인들이 합세하여 시작된 동 반란은 낮은 급료, 열악한 거주여건, 진급 문제 등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원인임.
- 이에 5월 6일 코트디부아르 제2의 도시인 중부의 Bouaké에서 군사 반란이 재발하여 5월 12일부터 Abidjan을 비롯한 주요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며 Alain Richard Donwahi 당시 국방장관(현 수자원·산림 장관)과 보좌관들이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에 의해 억류되었으나, 5월 16일 정부와 군인들 간에 협상이 타결되며 모두 풀려났음.
- 급료 문제로 인한 군사 반란은 앞서 2014년 11월에도 발생한 바 있어, 향후 군인들의 처우개선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사한 반란이 되풀이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적자 지속으로 인해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어 반란 재발의 위험성이 상존함.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열악한 생활환경

- 코트디부아르는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이 여전히 열악하여,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6년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88개국 중 171위로 최하위권에 그쳤음.
- 보건·의료시설 부족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54.1세에 불과하고, 영아사망률이 1,000명 당 66.0명에 이르고 있음. 교육수준도 낮아 평균 학교교육 이수기간이 5.2년,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 비중이 26.1%,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이 43.9% 수준임.¹²⁾
- 전체 인구의 약 28.2%가 극빈선(2011년 PPP 기준 1일 1.9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¹³⁾

유목민과 농경민, 북부 이슬람교도와 남부 기독교도 간의 갈등 및 테러 위협 상존

- 코트디부아르는 역내 강국인 나이지리아와 유사하게 토지 이용을 둘러싼 유목민과 농경민 간의 갈등, 종교적 차이에 의한 북부(이슬람교)와 남부(기독교)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 유목민들이 가축 떼를 몰고 목초지와 수원지를 찾아 이동하는 중 가축들이 논밭을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여 유목민과 농경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2016년 3월 북동부 Bouna에서 유목민과 농경민 간 무력 충돌로 최소 17명의 사상자와 군인, 경찰관 포함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12) UNDP. (hdr.undp.org/en/countries/profiles/CI, 조회일자: 2018.10.29.)

13) World Bank data. (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DDAY?locations=CI, 조회일자: 2018.10.29.)

사회동향

- 코트디부아르의 종교는 이슬람교와 기독교로 양분되어 있으며, 북부 지역 주민 및 인근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이민자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이고 남부 지역 주민은 주로 기독교도로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 갈등의식이 잠재해 있음.
- CIA World Factbook 2018에 의하면, 코트디부아르의 종교별 인구는 이슬람교 42.9%, 기독교 33.9% (카톨릭 17.2%, 복음주의 개신교 11.8%, 감리교 1.7%, 기타 종파 3.2%)로 나타남. 한편, 2014년 집계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72.7%는 이슬람교도, 17.7%는 기독교도로 조사됨.
- 이러한 지역적, 종교적 분열은 내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인접국들(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과의 갈등도 상존함.
- 인접국들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로부터의 공격 문제도 코트디부아르의 치안을 위협하는 요소들 중 하나임.
-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 차드를 포괄하는 차드 호수 유역에서는 Boko Haram(대원 규모 1,500여명 추정)과 IS(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대원 규모 3,500여명 추정)가 세력 확장을 추진 중임.
- 한편,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인 JNIM¹⁴⁾(대원 규모 800여명 추정)은 말리에서 출범하여 현재 말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음.

코코아 농장에서의 강제 노역 아동노동 문제

- 코코아 농장에서의 저임금 강제 노역 아동노동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내전으로 인해 대규모로 발생한 고아들이 코코아 농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하며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인신매매를 통해 팔려온 아동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에볼라 관련 위험성은 통제범위 내로 관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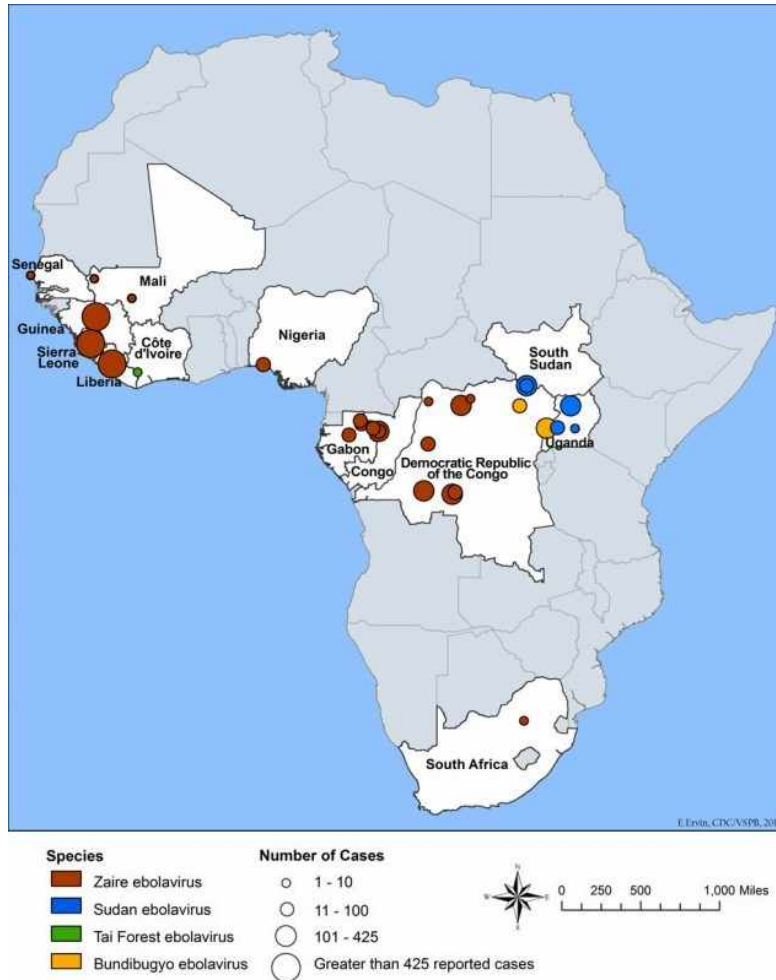
- 기니, 라이베리아 등 에볼라 발병국과 인접해 있어 에볼라 발생 가능성이 잔존해 있으나,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에볼라 발생 건수가 없어 관련 위험성은 통제범위 내로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2018년 9월 말까지 코트디부아르의 에볼라 발병환자는 1994년의 1명이 유일하며, 환자는 스위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음.¹⁵⁾

14) JNIM(Jama'at Nasr al-Islam wal Muslimin) : 아랍어로 "이슬람과 무슬림 지원 그룹"이라는 뜻.

15) www.cdc.gov/vhf/ebola/history/chronology.html (조회일자: 2018.10.29.)

사회동향

<그림 2> 1976년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에볼라 발병 상황 지도 (바이러스 유형별 구분)



자료: 미국 CDC

국제관계

프랑스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넘어 실리적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코트디부아르는 과거의 식민 종주국인 프랑스와 가장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아프리카 국가로, 1999년 12월의 쿠데타에 의해 PDCI의 40년 집권이 종식되기 전까지 프랑스의 자본과 다국적기업이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와 무역을 좌우해 왔음.
- 쿠데타와 내전을 거치는 와중에도 프랑스와의 긴밀한 정치·경제·군사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프랑스 군은 코트디부아르 내전에 적극 개입하였으며 현재도 코트디부아르 내 군사기지에 주둔하고 있음.

국제관계

- 다만, Ouattara 행정부는 그동안 프랑스에 편향되었던 자국의 국제관계를 다변화하고 국가개발계획 실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코자 노력하고 있음. 내전으로 미개발된 농업, 광업, 에너지 부문의 성장잠재력이 높기 평가됨에 따라 유럽, 북미, 아시아 국가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2013년 이후 코트디부아르에서 중국의 국영기업들과 국영 금융기관들이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이에 소요되는 금융을 제공함에 따라, 중국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코트디부아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중국의 코트디부아르 인프라 시장 진출 본격화

- 중국은 2013년 코트디부아르에 아비장 항만 수용능력 확장 공사, 서부의 Man 시와 코트디부아르 제2의 항구인 San Pedro 항 사이의 광물 및 코코아 빈 수송용 철도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 소요자금 약 100억 달러를 시장이자율 미만의 저리로 제공하면서 코트디부아르와의 관계 강화를 시작하였음.
- 이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6년 시작된 주요 전력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7.8억 달러 차입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 11월 1단계가 준공된 발전용량 275MW 규모의 Soubré 수력발전소(공사비 약 6.5억 달러) 공사를 중국 국영기업 Sinohydro Corporation가 담당하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
- Sinohydro Corporation은 4단계까지 이어질 예정인 Soubré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 전체를 수주하여, 2020년까지 최종 4단계를 완공할 계획임.
- 중국이 과거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코트디부아르에 이처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코트디부아르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광업 부문에 대한 진출 본격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코코아 빈 수출과 관련하여 인접국인 가나와의 협력관계 구축

- 코트디부아르는 자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코아 빈 생산국인 가나와 공동으로 2017년 6월 코트디부아르-가나 코코아 계획(Cote d'Ivoire-Ghana Sustainable Cocoa Initiative)을 창설하고, 2018년 6월 양국이 공동으로 2018/19년 곡물 수출 시즌의 코코아 수출 시기 및 물량을 공동 발표하는 등 국가경제 및 상품수출의 근간인 코코아 빈의 수출가격 안정을 위해 가나와 협력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 코트디부아르는 2009년 3월 고채무저소득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 31억 달러, 2012년 6월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Initiative)로 13억 달러, 파리클럽 공적채무 탕감으로 33억 달러 등 총 77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탕감받았음.
- 2012년 프랑스 6.5억 유로, 2013년 미국 2.1억 달러, 영국 5천만 달러, 일본 2.2억 달러의 채무탕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순차적으로 채권국들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았음.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금액 감소 등 외채상환태도 개선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잔액이 2013년 9월 말 2억 3,850만 달러에서 2014년 9월 말 3,960만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18년 6월 말 1,37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개선되었음.
- 2018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단기 3,350만 달러, 중장기 2억 990만 달러로 총 2억 4,340만 달러임.
-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8.10)	6등급 (2017.10)
Moody's	Ba3 (2015.11)	B1 (2014.07)
Fitch	B+ (2015.12)	B (2014.07)

OECD 6등급 유지, Moody's와 Fitch는 2014년 신규 등급 부여 후 2015년 상향 조정

- OECD는 그동안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평가해 왔으나, 내전 종식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와 농산물 생산 증대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2015년 10월 개최된 CRE(국가위험평가 전문가) 회의에서 6등급으로 1단계 상향 조정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7월 7.5억 달러 상당의 10년 만기 유로본드 발행시 Moody's와 Fitch는 코트디부아르에 각각 B1 및 B의 신용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코트디부아르의 높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신용등급을 Ba3(11월) 및 B+(12월)로 각각 상향 조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는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였으나, 오랜 내전으로 성장이 정체되었음. 현 정부는 2011년 5월 내전 종식 후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복지 등 각 분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코코아, 커피, 캐슈넛 등 상품작물 수출에 힘입어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Ouattara 대통령의 소속 정파인 RDR이 주도하는 RHDP 연정이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 의석(255석 중 167석)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대선의 RHDP측 후보 선출을 놓고 연정의 또 다른 축인 PDCI가 RDR과의 대립 끝에 2018년 6월 RHDP에서 이탈하여 연정 내의 분열이 노출되며 향구적인 정치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2년 대규모 외채탕감 이후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과 D.S.R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수차례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단기간 내 외채상환능력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